장덕조 소설에 내재한 '질투' 모티프 고찰

-『激浪』을 중심으로 -

김윤서*

‖ 차 례 ‖

Ⅰ. 머리말
Ⅱ.『激浪』에 내재한 질투의 유형화
1. 추련의 파괴형 질투와 광기
2. 금희의 변이형 질투와 유희
3. 은주의 수렴형 도덕화
Ⅲ. 맺음말

【국문초록】

인간의 정념 기호학에 내재한 '질투'는 남녀의 성차, 동서양의 고금을 막론하고 지극히 보편적인 감정으로 문학의 주된 모티브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1950년대 장덕조의 연애소설『激浪』에서 나타난 '질투'의 정념이 전후파 여성을 중심으로 '성·사랑·결혼'과 이데올로기의 불완전성 및 욕망의 영역을 형성해 가는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련으로 대표되는 파괴형 질투와 광기는 질투의 불안과 갈망에 기인하며 욕망의 충족을 위한 부정적인 애착을 통해 사랑의 대상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고자 하지만 결코 완전한 충족을 얻지 못하고 사랑의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둘째, 금희로 대표되는 변이형 질투와 유희는 50년대 '아프레'의 전형으로 내부로 억압되거나 잠재되지 못한 질투의 감정을 타자의 음모에 가담하는 형태로 질투를 외부로 발산하려 하지만 파괴형 질투와 유사한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된다. 셋째, 은주의 수렴형 도덕화는 작가의식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대변하는 유형으로 질투의 수렴과 도덕화를 통해 도덕과 윤리를 계도함으로써 대의적 가치를 조율한다.

본 연구는 장덕조 소설 속 '질투' 모티프의 고찰을 통해 50년대의 다양한 대중소설의 자장 안에서 작가의 현실인식과 특성을 이해한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 질투, 애착, 광기, 경쟁, 도덕화, 질투의 성차

Ⅰ. 머리말

'정념'은 "정신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 일어나고 지속되며 강화되는 느낌이나 지각 혹은 감동"[1]을 의미하며 데카르트에 의해 이원론의 입장에서 정의된다. 정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와 모호함은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정의를 필요로 한다. 이에 그레마스는 기존의 관점과는 다른 새로운 인식을 제시하였으며 정념 어휘소의 세분화된 요소 중 하나인 '질투(jealousy)'를 제시하였다.[2]

'질투'는 파트너와의 원만한 관계가 제삼자로 인해 손상당할지도 모른다

---

1) 홍정표, 「정념 기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p.41.
정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이성과 대립적 관계에 위치하며 비합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육체에 귀속되어 있어, 격렬하게 느끼는 쾌감이나 고통"(백선기, 「영화에서 표출된 정념의 기호와 그 함축적 의미」, 『기호학연구』 28, 2010, p.137)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이를 세분화한 개념으로 일상적으로 친숙한 '감정(sentiment)'은 유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정동의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정서(emotion)'는 돌발적이고 급작스러운 반응 혹은 운동으로서 강렬한 강도와 짧은 지속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정념(passion)'은 지성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위의 개념과 구분된다(박인철, 「테오듈 리보의 정념 이론」, 『기호학연구』 28, 2010). 그러나 감정, 정서, 정념의 개념을 일관되게 사용되기가 쉽지 않으며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정념을 정도, 성향, 열정, 감정, 정서, 감성 등의 개념을 모두 포괄하는 총칭적인 용어로서 사용한다.

2) 홍정표, 위의 책, pp.41-42.

는 위협에서 오는 불안과 이런 위협을 발생시킨 상대에 대한 분노 감정이 핵심반응이다.[3] 이는 보편적인 인간의 감정으로 그 당위성으로 동서양의 문학과 예술 영역에서도 '질투'와 관련된 주제는 빈번하게 논의되었다.[4]

먼저 서양 문학 속에 질투를 살펴보면, 서양 문학의 근원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인간 본연의 감정으로 유의미하게 다루었으며[5] 구약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가 첩인 하갈을 향한 '질투'를 언급하고 있다.[6] 또한 동양의 유교적 문화에서는 '질투'를 악덕 중의 하나인 '여성' 고유의 특성으로 규정짓고 이를 '금기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는 '질투'를 통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억압 기제로 작용했다.[7] 그럼에도 '질투' 모티브는 사랑의 광기와 결부된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모습으로 동

3) 함진선・이장한, 「성별과 애착유형이 연애 질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6권 제2호, 한국심리학회, 2007, p.102.

4) '정념기호학'과 그에 따른 상황적 요소로서 보조적 기능을 하거나 혹은 작품의 서사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감정인 '질투'를 다룬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미현, 「분노의 문학과 정념기호학 －김사과의 「미나」를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제44집, 한국기호학회, 2015; 박종홍, 「<심문>의 '질투' 고찰」, 『국어국문학』 제175호, 국어국문학회, 2016; 최승은, 「일본 중세 설화에 나타난 질투 관념 -『발심집(發心集)』, 『고금저문집(古今著聞集)』을 중심으로」, 『일본사상』 31,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16; 이경미, 「韓・中・日 古典文學 속에 보이는 여성과 질투」, 『中國學』 第41輯, 대한중국학회, 2012; 홍정표, 「'질투'에 관해서 －정념의 기호학」, 『불어불문학연구』 제39집, 한국불어불문학회, 1999; 홍정표, 「김동리의 단편소설 『황토기』에 나타난 질투의 기호학적 분석」, 『기호학연구』 22권, 한국기호학회, 2007.

5)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름다운 여신 헤라는 남편인 제우스가 관심을 갖는 여성에게는 폭발적인 질투를 발휘하며 괴롭혔다. 이외에도 셰익스피어의 '오델로'에 나타난 남편의 질투, 영화 '아마데우스'에서 보여주는 살리에르의 질투도 서양 문학의 주요한 모티브가 된다.

6) 구약성경 창세기 16장 5절.

7) 이경미, 「韓・中・日 古典文學 속에 보이는 여성과 질투」, 『中國學』 第41輯, 2012, 4, p.54.

양의 역사와 문학에서도 종종 재현되었다.[8] 이처럼 인간의 정념 기호학에 내재한 '질투'의 감정은 남녀의 성차, 동서양의 고금을 막론하고 지극히 보편적인 감정으로 문학의 주된 모티브가 되고 있다.[9]

'질투'는 사랑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성에게 사랑으로 인한 질투심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10] '질투'는 애착과 경쟁 관계의 교차점에 놓이며, 이 관계는 많은 상호 작용을 생성한다. 특히 질투하는 주체는 경쟁하는 관계에서 연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에 혼란을 느낀다. 따라서 이를 억압, 잠재시킴으로 내적으로 수렴하거나 광기를 통해 외부로 발산하는 모습을 보인다.

장덕조 소설『激浪』[11]은 '질투' 모티프가 하나의 보조적인 기능으로서 작품의 서사 전체에 영향을 더하며 문학적 역할을 확장해 간다. 애정 갈등이 전면화된 서사의 진행에 '질투'는 전체 플롯이 아닌 하나의 상황적 요소

8) 동양 문학에서 '질투' 모티브가 재현되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사마천의『史記』를 들 수 있다.『史記』를 보면(『史記・本紀9・呂太后』) 한고조 유방의 아내 여후는 비록 남편을 도와 천하 통일을 한 정치적 능력과 수완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은 척부인의 눈을 도려내고 귀를 멀게 하고 팔다리를 잘라서 인간돼지로 만드는 광기와 폭력을 서슴없이 행하는 질투의 화신으로 기록되어 있다.

9) 고전 시대 철학자들이 정념론을 위해 채택한 계통적이고 분류적인 접근 방법과 달리, 기호학에서 정념론의 접근 방식은 통합적이고 통사적이다. 즉 정념 기호학에서 내재한 '질투'를 분석했을 때 '질투'라는 어휘소 속에 들어 있는 복잡한 의미 구조를 과학적으로 밝히며 의미 구조망을 좀 더 체계화 하고 있다.(서정철,『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1988, p.327.)

10) <열의>와 <질투>는 강한 애착이라는 공통된 의미소(의미소는 의미적이고 통합적인 성질을 내포하는 잠재적 요소를 지칭하며, 기의의 단위이다)를 갖고 있다. 차이점은 열의는 긍정적으로, 질투는 부정적으로 도덕화된 정념이라는 점이다.(홍정표, 위의 책, p.190.)

11)「激浪」은 1957년 12월 1일부터 1958년 5월 31일까지(181회)『경향신문』에 연재된 소설로서, 1959년『新太陽社』에서 간행된 바 있다. 본고는 1959년 판을 텍스트로 사용하기로 한다.

로서 보조적 기능을 한다. 질투 모티프가 여성성의 이미지와 결합하여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감성과 관련된 스토리가 위험하고 미숙하게 전개되며 분노의 정념이 등장인물의 죽음으로까지 연결된다.

'질투'의 감정은 삼자 간의 갈등에서 유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의 변화에 대처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불안감을 바탕으로 하며 그에 따른 애착은 연적과의 경쟁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질투의 감정은 주체와 대상 사이의 '애착' 관계와 주체와 연적 사이의 '경쟁'으로 교차점에 놓여 혼란스러운 관계를 형성한다.[12]

이같은 복잡한 정서와 질투의 민낯이 『激浪』에서 낯설지 않게 등장해 문학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50년대 장덕조의 연애소설 『激浪』에서 나타난 '질투'의 정념이 전후파 여성을 중심으로 '성·사랑·결혼'과 이데올로기의 불완전성 및 욕망의 영역을 형성해 가는 구체적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13]

Ⅱ. 『激浪』에 내재한 질투의 유형화

『激浪』의 여성인물들이 보여주는 질투는 크게 파괴형, 변이형, 수렴형

12) 홍정표, 위의 책, p.42.

13) 『激浪』을 '연애소설'로 규정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연애소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남녀간의 사랑이 소설 구성상 전면적인 것이어야 하며, ②남녀 간의 사랑을 그리면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나 인물이 적절히 배치되어야 하며, ③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목표나 지향점이 인간들 간의 깊은 이해와 화합에 있어야 하고, ④작품에 표명된 작가의 사랑관 또는 연애관이 진지하게 표명되어야 한다.(김창식, 「연애소설의 개념」, 대중문학연구회 편, 『연애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8, pp.13-27.) 『激浪』은 위와 같은 연애소설의 필요조건을 충족한 소설이다.

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파괴형, 변이형에서 나타나는 질투와 경쟁은 그들의 관심인 사랑과 연애가 남성중심사회와 자본주의의 폭압과 맞물려 섹슈얼리티를 핵심 요소로 부각시킨다. 혼란한 사랑의 아노미에 직면한 이들은 가부장제와 미시적 폭력으로 얼룩져 있는 일상에서 육체적, 외형적 매력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세속적이고 소비적이며 속물적인 영악성을 드러낸다. 이에 비해 수렴형에서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 도덕화와 타자 지향성을 추구하는 여성 인물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질투'의 정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그 문학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사랑에 내재한 위험하고 미숙하며 열등한 하위 주체로 잠재해 온 '질투'의 정념을 새로운 틀로 구축하려는 시도이다. 폭력적인 과잉 반응이라는 도덕적 비판의 대상에서 문학적 응전으로서 그 가치를 재고하여 새로운 틀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1. 추련의 파괴형 질투와 광기

<질투하는 자>의 어원은 '특히 ~에 매우 애착하거나 집착하는 자'이다. 이 경우 주체가 가지는 '열의'에는 애착이 전제되어 있으며 그 강도는 열정으로 표출된다. 연적으로부터 자신의 사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감정 이행도 가능하다. 특히 애정 갈등으로서의 '질투'는 사랑의 완전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으로 감정의 복합체이다.

> 질투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네 번 괴로워하는 셈이다. 질투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질투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내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 봐 괴로워하며, 통속적인 것의 노예가 된 자신에 대해 괴로워한다. 나는 자신이 배타적인, 공격적인, 미치광이 같은, 상투적

인 사람이라는 데 대해 괴로워하는 것이다.[14]

롤랑 바르트의 '질투의 단상'에서는 질투로 인해 파생되는 혼란과 당혹스럼움, 질투에 내재된 복합된 정서를 잘 대변한다. 바르트는 질투 논의의 중심축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더 좋아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감정"으로 보고 있다.[15] 따라서 질투가 소중한 관계의 위협에 대한 내·외적 행동반응으로 확대되면 개인적으로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고 파괴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레마스와 퐁타뉴는 이러한 '질투'를 둘러싼 윤곽을 체계화하여 분절한다. 어휘-의미적 접근법으로 볼 때 질투는 크게 애착관계(attachemena)와 경쟁관계(rivalite)로 분절되며 새로운 차원으로 재해석한다.[16]

『激浪』에서는 중심 서사인 한은주와 박창렬, 추련의 애정 갈등이 1950년대 중반 혼돈된 격랑(激浪)의 세태를 흥미있게 반영하며 담론화한다. 특히 여성 형상화의 중심 서사에 '질투'의 정념이 내재해 있다.

추련이 주최한 아트리에 낙성파티에서 은주가 추련을 처음 보았을 때, 명성에 비해 의외로 젊고 호사스러운 모습에 놀랐다.

---

14) 롤랑 바르트, 「질투」, 『사랑의 단상』, 김화영 옮김, 동문선, 2004, p.213.

15) 롤랑 바르트, 위의 책, p.210.

16) 애착관계의 윤곽에는, <소유(possession)>, <향유(jouissance)>, <열의(zele)>, <배타성(exclusivite)> 등이 있다. 이중 열의는 애착관계를 강화시키고 도덕화한다. '강한 애착관계'라는 공통의 의미소로부터 '열의'와 같은 긍정적으로 도덕화된 정념과 '질투'와 같은 부정적으로 도덕화된 정념이 획득될 수 있다. 경쟁관계의 윤곽에는 <선망(envie)>, <경쟁(concurrence)>, <경합(competition)>, <대항심(emulation)>, <의구심(ombrage)> 등이 있다. 이 중 대항심은 고대에는 질투심과 동의어로 보았다. '질투'는 여러 윤곽 중 가장 복잡한 윤곽으로 치부되며 질투하는 자의 관점이 두렵거나 능가된 것으로 괴로워 하는 경우는 대항심보다는 오히려 시기심에 가까운 감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홍정표, 「'질투'에 관해서 -정념의 기호학-」, 『불어불문학연구』 제39집, pp.264-267.)

> 은주의 상식으로는 그만큼 명성이 있고 남의 위에 설만한 여성은 침착하고 의젓하여 소위 한국식 점잖은 태도를 몸에 지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여자는 소녀 같이 신선하며 발랄한 매력을 그대로 발산하고 있는 것이다. 하늘빛 「이브닝」에서는 그 날씬한 두 팔이 송두리째 드러났다. 가는 허리, 이상하게 연지를 칠한 입술 그러나 가장 기이한 것은 그 여자의 눈이었다. (『激浪』, p.16)

조각가이자 미망인 추련은 불란서에서 미학을 전공한 박창렬에게 계속 애착하고, 질투하는 주체로서 연적과의 모든 분배나 공유를 철저히 거부하는 '배타성'을 보인다. 하지만 창렬의 관심이 끊임없이 은주에게 향하자 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고 급기야는, 심한 질투심에 사로잡혀 증오에 찬 공격적인 표출과 음모를 꾸미게 된다.

> 사랑하는 남자를 독점하고 싶다는 단 한가지 소망 때문에 각가지[17] 불법을 감행해야 하는 여인- 추련은 말할 수 없는 서글픔과 비애(悲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그렇게 흐느껴 울었다. 이처럼 울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음모를 꾸미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스스로 원망스로웠다. 추련의 감정이나 행동에는 지금 새삼스레 상식론(常式論)이나 정당론(政黨論)을 용납 할수없게 되어있다. (『激浪』, p.400)

결국 추련은 불안한 긴장적 주체로서 그의 부정적인 애착 관계는 행동적 반응을 수반한 '파괴형' 질투로 변형되어 사랑의 대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질투와 가장 관련이 있는 사랑 유형으로는 소유적 사랑(manie)이 제기된다.[18] 추련의 창렬에 대한 소유적 사랑은 분노와 폭력이라는 위험성을

17) '갖가지'의 오타로 보인다. 본고의 인용문은 원문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그대로 표기한다.

18) 소유적 사랑은 질투와 소유욕이 강하고, 상대에게 강한 몰두를 보이며 더 많은 애정과 헌신을 요구한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항상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내포하여 최후에는 음모라는 행동반응이 동반된다.

한은주에게 다른 여인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친 추련의 첫인상처럼 추련은 질투의 화신이 되었다. 박창렬에 대한 추련의 애착은 지나친 갈망이 되어 불안으로 삶의 균열을 일으키며 스스로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질투와 더불어 한은주에 대한 증오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처럼 극단적인 질투는 주체가 대상을 배타적으로 독점하기를 원하는 부정적인 정념이라 규정할 수 있다. 질투가 선동하는 다양한 행동 중 체계적으로 감정 통제가 위협적인 폭력과 살인은 대체 매커니즘의 가장 파괴적인 종류라고 볼 수 있다.[19]

추련의 질투는 한은주와의 경쟁과 긴장으로 <더 강렬한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 차츰 애증과 불안이 극도에 다다르자 <파괴적인 증오>로 전이되어 광기를 표출한다.[20]

'질투'의 감정이 건전하게 사용되면 열정에 불을 붙여 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반면에 애정 관계에 결부되어 파괴적으로 표출될 경우, 심리적 고통을 유발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급기야는 사랑하는 연인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이어진다.[21] 추련이 보이는 질투는 후자로서 다음과 같

하는 욕구가 강하다.(함진선 · 장한, 「성별과 애착유형이 연애 질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한국심리학회, 2007, p.112.)

19) 데이비드 버스, 이상원 옮김, 『오셀로를 닮은 남자. 헤라를 닮은 여자』, 청림출판, 2003, p.279, 참조.

20) 현대 정신분석학 이론가들은 '광기'에서 시적인 혁명성을 찾아내면서 이런 광기가 가부장제의 억압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형태라고 주장한다. 필리스 체슬러는 남성과 여성에게 성적인 잣대를 달리 적용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생산과 재생산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여성의 성은 생식력을 위한 것임에도 그런 재생산 영역마저 남성들이 탈취하여 영적으로 '성모 마리아'를 재탄생시켰다. 따라서 여성들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경우 신성한 어머니로서의 자격을 박탈 당하고 창녀나 마녀로 단죄된다. 여성이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과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방종한 님포매니아, 팜프 파탈, 혹은 마녀의 이름으로 지옥과 같은 정염의 불길로 추락한다.(필리스 체슬러 · 임옥희 옮김, 『여성과 광기』, 여성신문사, 2000, pp.12-15.)

은 5단계의 형태를 보이며 폭력적이고 자멸적인 종말로 치닫게 된다.

애착 → 갈망 → 불안 → 질투 → 음모

먼저 애착 단계는 질투에 내재 된 부정적 요소인 맹목적 열정으로서 감정 이행을 내포하고 있다.

> “어디를 그렇게 헤돌아다니는게요” 하고 추련이 무관하게 물었다.
> “오래 기다렸수”
> “이이는 밤낮 돌아 다니기만 하나봐. 전번에두 왔드니 없고 이번에도 한시간이나 기다리게 하구”
> “누가 할 소린지 모르겠군. 숨바꼭질 하듯이 없을때만 찾아 오면서”
> “참 기막햐. 남의 속도 모르고.” (『激浪』, pp.49-50)

추련에게 있어 창렬의 모든 행동과 동요는 불만족을 느끼게 했다. 창렬이 다른 상대에게 열정을 품고 있다는 의혹을 감지하게 되자 경쟁자에 대한 질투로 심적 평정을 잃게 된다.

> 추련은 종시 입가에 가냘픈 미소를 띠우고 있었으나 마음속은 편안하지 않았다. 박창렬을 빼앗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 싸워야 했다. 용서없이 적을 넘어 뜨려야 한다. 현대 여성의 새로운 십계(十戒) 가운데는 「네 마음에 있는 남자를 놓치지 말라」 하는 계목(戒目)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것이다. <…> 그것이 가장 정당한 방법이요, 여성의 일생에 있어서도 중대한

21) 홍정표, 「김동리의 단편소설 『황토기』에 나타난 질투의 기호학적 분석」, 2007, p.388.

일이라 여겨졌다. 추련은 곰곰이 거기 대한 작전(作戰)을 가다듬고 있었다. (『激浪』, p.56)

추련은 "전후파적(戰後派的)인 불량성을 띤 여자이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점으로는 손색이 없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창렬의 "사모의 정열"은 "순수하여 물질적인 욕심이 없는" 은주에게로 향했다. 창렬의 열정은 마침내 은주의 야간교실에 물질적 지원을 하기에 이른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좋은 그림이나 좋은 음악이나 좋은 문학을 한꺼번에 느끼는 것이 박창렬의 버릇이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은 너무도 초라한 풍경속에서 서있지 않은가. 초라한 모습 – 그렇기 때문에 박창렬이 지금 느끼는 음악과 시(詩)와 그림은 어딘지 모르게 비조(悲調)를 띠우고 있는 것도 같았다. (도와주고 싶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激浪』, p.109)

인용문에서 보여지듯 창렬의 은주에 대한 연민과 애정은 애착으로 변모해 아낌없는 물질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나 질투의 주체인 추련에게 포착되어 적대심을 유발시켜 심적 갈등을 겪게 한다. 한때 창렬은 추련을 향해 용감하고 정열적으로 다가섰던 남자였다.

그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추련은 미망인이었다. 그러나 창렬의 마음은 이미 식어버렸다. 경쟁자와 사랑을 다투어 목숨을 걸었던 일도 한마당 봄 꿈으로 그 여자가 이제는 남편있는 사람이건 혼자 사는 여인이건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추련은 그렇지가 않은 듯 했다. <…> 매사에 질투가 났다. (『激浪』, pp.52-53)

추련의 어긋난 애착은 연적인 한은주에게 도덕적 충격과 동요를 일으킬 질투의 본능을 표출한다. 박창렬에게 수면제를 먹여 가짜 밀회 장면을 연출하는 등 질투의 부정성을 보여준다. 추련은 창렬이 은주에게 적극적 애정을 보이자 불안한 주체로서 극단적인 질투에 사로잡혀 음모를 꾸미게 된다. 결국 애정갈등에서 유발된 추련의 질투가 창렬을 죽음으로 귀결시키는 상황으로 코드화된다.

> (나는 양보하는 사랑은 못한다. 얕게 배회하는 그런 사랑은 못해.)
> 추련은 자리위에 벌떡 일어나 앉았다.
> 추련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것은 사랑의 불타는 사다리였다. 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동안 그는 무서운 화상(火傷)을 입고 다시 땅위에 떨어질는지 모른다. 죽을는지도 알수 없다. <…> 이같이 격렬한 그의 내부적 정열에 비하면 은주에게 대한 추련의 질투는 오히려 안개 처럼 흐린 것이었다. (『激浪』, pp.233-234)

추련은 질투의 감정에서 유발된 '쟁탈'의 범주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 또한 욕망에 대한 소유욕은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되는 관능성과 폭력성을 명징하게 드러낸다.[22]

> "이게 웬 일인가"
> 침대위 박창렬의 뺨에 뺨을 대고 엎디어 있는 여자가 추련인줄 분명히 제 눈으로 보면서도 꼭 헛것을 보는것만 같다. 추련은 방문이 열릴때 잠간 고개를 들었으나 다시 박창렬의 목을 얼싸안으며 가만히 그 입술에 입을 대고 엎

22) 1950년대 신문소설의 '관능성'은 그 신호탄격인 정비석의 「자유부인」에 나타난 에로티시즘으로 논란이 뜨거웠다. 미국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는 성의 관능성은 1950년대 사회에서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 윤리논쟁으로 이어졌다.(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p.190.)

디었었다. "이럴수가 있단 말인가."

은주는 여전히 그곳에 얼어 붙었다. (『激浪』, p.269)

추련은 파티석상에서 창렬에게 약물을 먹이고 어지러워하는 그를 방으로 데려가 눕힌 뒤, 은주를 불러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하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은주는 큰 갈등을 겪게 되고 시골 여학교 교사로 부임하며 창렬과의 만남을 거절한다. 그러나 창렬은 포기하지 않고 은주의 가정을 돌보려 하자 추련은 '<第二의 陰謀>'를 꾸미게 된다.

(체온의 접촉만이ㅡ)

그래도 잠깐 주저한 후 남자의 옆에 다가 누웠다.

하얀 가슴을 열고, 잠이 든 남자의 무의식(無意識)한 손을 끌어 자기 허리에 감게했다. 젖가슴으로 남자의 가슴을 눌렀다. 입술이 입술을 더듬는다. 그래도 박창렬은 눈을 뜨지 않았다. 숨소리가 약간 거칠어졌다가, "흠" 하고 트이며 다시 호흡이 정돈된다. "여보" 견디지 못하고 추련은 다시 남자의 입술에 제 입을 가져갔다. (『激浪』, p.435)

위의 경우처럼 1950년대 신문소설에서 나타나는 여성인물들의 광기와 선정성, 야만성 등은 대중문학을 지탱하는 그 나름의 미학적 속성을 반영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23] 텍스트의 서사 주체가 유발하는 육체적 선정성

23) '선정성'은 영어의 'sensationalism'를 번역한 말인데, 국어사전에서 선정(煽情)은 '정욕을 불러일으킴'이라는 뜻으로 센세이널리즘의 일부일 수는 있어도 전부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번역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선정성이 성적(性的)인 분야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선정주의는 말초적인 문화에 붙여지는 말이 되었으나 대중독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시도하는 형식과 내용상의 기교, 노력, 과장 등을 의미한다.(강준만, 「선정주의는 어떻게 탄생했나」, 『대중문화의 겉과 속』, 인물과사상사, 2013, pp.427-434.)

과 야만성은 수용주체의 흥미를 유발한다. 대중수용의 관점에서 볼 때『激浪』은 일반 대중으로부터의 호응이 대단했다.[24] 특히 악역을 맡은 추련과 같은 인물을 통해 금지되어 온 영역에 대한 대리만족이나 카타르시스의 감정을 느끼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미학의 세계를 구축하였다.[25]

2. 금희의 변이형 질투와 유희

광적으로 연적(戀敵)에게 '시기심'을 보이며 경쟁 관계에 있어 두려움과 불안감의 혼란스러운 정서를 보여주는 것이 추련의 지배적 정서이다. 반면에 금희는 애착과 경쟁이라는 형상소에서 벗어나 그 코드의 틈새에서 연적을 대한다. 추련과 금희에게 동일하게 질투의 대상이 되는 은주의 현실적인 상대자는 창렬이다. 창렬이 은주에게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지자 금희는 경쟁자를 적대적인 존재로 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야간교실을 운영하는 부수적 인물 준식에게 관심을 가진 금희의 경우는 질투의 지배적 코드인 당혹감(upset)이나 상처(hurt), 분노(anger), 비난(blame) 등의 틈새를 벗어난다. 따라서 관계의 변화에 대한 불안감이나 위협을 갖지 않아도 되기에 질투에서 비껴가는 변이형 질투의 성격을 띤다.

금희는 근대적인 사랑과는 변별되는 자유로운 사랑의 방식을 추구한다.

---

24) 독자들이 신문소설에서 기존에 보지 못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즐거움을 느끼거나, 여러모로 읽는 즐거움을 느낄 때 신문의 발행부수는 급증하게 된다.(이봉범,「한국전쟁 후 풍속과 자유민주주의의 동태」,『한국어문학연구』56, 한국어문학회, 2001, p.344.) 당시의 신문사측에서는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다. 사전에 연재 예고(정비석,「신문소설론」,『소설작법』, 문성당, 1957, p.224.)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요, 연재 중간중간에 지난 호까지 연재된 내용의 줄거리를 게재해 주기도 하였다. 또한 연재가 끝난 뒤에는 독자들의 반응을 싣는 경우도 있었다.

25) 카웰티(J. G. Cawelti), 박성봉 편역,「도식성과 현실도피의 문화」,『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p.107.

감정과 욕망을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연애의 지향은 '성=사랑=결혼' 이데올로기를 탈피한 유희(遊戱)의 장을 형성한다. 사랑을 일종의 게임으로 생각하여 정서적 애정 및 헌신이 결여된 쾌락 추구의 유희적 사랑(ludus)은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랑한다. 이러한 사랑의 유형은 김욱과 유준식을 저울질하며 만나는 금희의 연애 유형에서 잘 드러난다.

금희의 비규범적 사랑의 양식들이 기존 연애 담론의 질서를 위배하는 배치 방식은 대중의 관심과 취향, 현실감각에 민감했던 신문소설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다. 50년대 신문소설에서는 전후 사회의 세태를 여성들에게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댄스바람, 뇌물청탁, 성 문란 등 당시의 도덕적·윤리적 일탈 현상이 왜곡된 형태로 드러난다. 또한 '무규범성(無規範性,normlessness)'의 세태 풍조가 거의 예외없이 나타난다.[26]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세력이나 배경을 등에 업거나 금품·유흥 등을 제공하면서 원만한 일 처리를 부탁하는 물질만능주의가 1950년대 사회에 만연하였음이 명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요인이 잘 부각된 장면은 『激浪』의 금희에게 나타나는 유희적 연애와 성적 일탈의 모습이다. 다음의 장면들은 그런 사태를 잘 보여준다.

> "뇌물을 보내기는 보내야지요?"
> "부탁을 하는데 사실 빈 손으로 할수야 없지."
> "보증 수표를 보내나요?"
> "건 안돼, 수표는 뒤에다 찾아간 사람의 이름을 적거든.

---

26) '무규범성'이란 "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규범이 붕괴되거나 행위의 법칙으로서 더이상 효과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서술한 뒤르켕(Emile Durkheim)의 아노미(anomie)의 서술에서 유래한 것"이다.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높은 期待感"을 의미한다.(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79, p.210.)

사건이 드러날때 이걸루 해서 발각이 나기 쉽단 말야,
그래서 요즘은 그 방식은 통 쓰이지 않아요."
"그럼 역시 켓쉬(現金)루 하나요? 과자 상자 아래 현금을
주욱 깔고 그 위에다 과자를 살짝 덮어 보낸다드구만."

(『激浪』, p.165)

금희가 은행 영업부장인 김욱에게 부정대부를 부탁하는 장면에서는 중역들에게 뇌물을 주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금희는 아버지가 민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두고 가장 큰 문제는 '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식집에서 김욱을 노골적으로 유혹한다.

"그보다 더한 얘기 해서 정말 약을 올려 드릴까요? 난 김부장이 저렇게 활 내는게 아주 매력이 있어."

그러면서 금희는 「스카-트」를 걷어 올리고 허리의 「쟉크」를 주욱 내린다. 이것은 흔히 그가 사용하는 전술(戰術)의 하나였다. 어쩌다가 남자의 기분이 상하고 공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스카-트」를 걷고 내의를 드러내어 분위기를 완화하는 것이다. <…>

"낼 부텀이라도 공작을 시작해야 해요" "아, 누구일인데"

그제야 금희는 남자의 입술과 뺨과 눈과 이마에 「키쓰」를 해 준다.

(『激浪』, pp.159-160)

당시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물질만능주의 세태는 뇌물청탁과 권력 동원 등의 형상화 된 풍조가 금희와 김욱을 통해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激浪』에서는 이러한 무규범성의 사회를 금희의 유희적 사랑을 통하여 집요하게 추적하여 보여준다.[27]

27) 유희적 사랑은 여러 명의 애인을 두고 이들을 번갈아 가며 관계를 즐기는 사랑의

> 사실 금희는 애욕에서 오는 깊은 고민이나 부덕(不德)을 모르는 여자였다. 열렬한 애욕이 빚어내는 음모라든지 범죄(犯罪)도 크게 생각해 본일이 없는 여인이다. 그에게 있어 연애는 항상 유희였다. (『激浪』, pp.253-254)

금희의 자유분방하고 거침없는 성격은 순수하고 정의로운 청년인 준식을 발견하고 차츰 호기심을 느끼게 된다. 준식 또한 금희의 거침없는 당당함과 온몸으로 발산하는 발랄함에 정신적 동요를 일으킨다. 그러나 유희를 즐기는 금희에게는 '충견(忠犬)과도 같이 저하나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대상이 필요했다. 금희와의 쾌락을 즐기는 김욱이 추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자 변이형 질투의 성격을 띤 준식과의 만남은 더욱 애착을 느끼게 된다.

> 추련이 자리에 섞이게 되자 김욱은 갑자기 생기를 띠었다. 잃어버렸던 귀중품을 다시 찾은 듯 종시 빙글거리고 있었다. 금희는 그것도 못마땅했다. 자기는 설령 무슨 일을 하고 다니건 김욱이만은 눈도 팔지않은 충견(忠犬)과도 같이 저하나를 지켜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
> <…> "제가 다른 여자 때문에 저렇게 허덕허덕 하고 있다면 내게도 생각이 있다. 젊고 순종적인 청년이 내 손아귀에 움켜잡고 있는 것이다". 그는 드디어 반발을 하고 말았다. 일단 반발을 하고나니 불현 듯 유준식이가 보고싶어졌다. (『激浪』, pp.285-286)

금희는 '엔죠이'를 위해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준식 또한 사랑의 대상보다는 '악덕(惡德)에 대한 유혹' 때문에 금희를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세계, 준식이 갖지 못한 특이한 면을 지닌 젊은 여성에게 묘하게 끌리는 것이었으며 결코 적극적인 애정은 아니었다. 때와 장소를

태도를 말한다. 유희적 사랑의 주체는 사랑하는 관계를 지속시키는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애인으로부터 얻어내는 자신의 기술을 시험한다.

가리지 않고 향락을 즐기는 금희는 '현대적' 가치관을 내세우며 준식에게 더욱 적극적이었다.

해방 후 문화적 환경은 급속도로 성문화를 중심으로 재편되어 가며 연애소설, 유희적 사랑 등은 해방 후 한국사회의 근대적 성격을 논의하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28] 금희는 이러한 애욕과 향락을 추구하는 '세태'의 대표적 인물이다. 김욱과의 대담하고 향락적인 사랑의 유희와 더불어 새롭고 신선한 준식에 대한 금희의 호기심은 변이형 질투의 성격을 띤다.

> 그는 처음 준식이 은주도 사랑하고 은영에게도 친절하게 하면서 자기에게만 오만하게 대하는 줄로 알았다. 반감과도 같고 질투와도 같은 감정이 일어났다. (『激浪』, p.194)

금희는 준식이 연정을 품고 있는 은주에 대한 반감과도 같은 질투를 느낀다. 김욱에게서 느낄 수 없는 준식의 청신함은 금희에게 무척 신선했다. 그러나 과거의 '아프레'나 '불량소녀' 같은 왜곡되고 일탈된 연애를 해 온 금희는 준식과의 결혼 문제로 고민을 한다. 결국 일탈된 금희의 과거마저 수용해 줄 것 같은 준식의 포용력을 기대하며 금희는 준식에게 청혼을 한다.

> "애초에 내 인상이 나뻣기 때문에 미스터·유는 그때 생각이 좀체로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거예요. 날 왈패로 아시는거지. 그렇지만 결혼한다면 나도 온화하고 참된 여성이 된다니까요. 선량한 주부가 돼요". 금희는 면면히 호소를 시작했다. 마음만 먹으면 무슨 소리든지 예사롭게 하고 곧 잊어버리는 금희는 "결혼만 해주서요. 정말 미스터·유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이 되겠어요". 하고 조른다. (『激浪』, p.294)

---

28) 서영채, 『사랑의 문법』, 민음사, 2004, p.20, 참조.

금희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며 새로운 애정관과 자유연애 등 분방한 생활을 즐겨왔다. 준식의 등장은 이러한 금희에게 '심경의 변화'를 초래했으며 커다란 '변혁(變革)'을 주었다.

> "제 사회관, 인생관이 달라졌기 때문이지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부화한 생활은 꿈같고 거품같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별의 별 남자들과 춤을 추러가고 영화를 보러가고 자각없이 지나간 시간이 무서워졌어요. 난 이제 모든게 의심스러울 뿐예요. 자존심도 없어지고 무엇이 참되게 사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 사랑을 옳다고 고집하고 앙양(昂揚)해왔던 마음이 갑자기 허무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버리며 이제는 그 사람, 유준식씨의 지탱해 주는 힘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 갈수가 없게 되었어요". <…>
>
> "역시 여자는 몸도 마음도 순수해야 하는 모양이지요. 순수 하다는건 순결하다는 뜻이예요". (『激浪』, pp.360-361)

이처럼 금희가 '순수', '순결'의 도덕성에 고민하는 모습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복원하려는 50년대 풍속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29] 그러나 준식과의 애정문제가 급진전하지 않자 금희는 질투가 자신의 내부에 수용하지 못하고 외부로 발산되는 '변이(變異)'의 자세를 보인다. 질투심이 내부로 억압되거나 잠재되지 못하고 '변이'의 모습을 보이는 형태는 추련의 음모에 적극 합류하는 행위에서 찾을 수 있다. 금희의 이러한 변이형 질투는 창렬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

29) 1955년 10월 창간된 『여원』을 필두로 한국사회를 대표하는 여성잡지가 발간되었으며, 여원을 중심으로 여성의 성, 사랑, 결혼의 문제는 일관되게 다루어왔다. 이러한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3. 은주의 수렴형 도덕화

은주는 추련과 금희의 경계 대상으로, 성격과 기질면에서 확연하게 대조적이다. 정숙과 부덕을 엄하게 교육받은 은주는 일반적인 대중적 취향과 조응하는 도덕적 주체이고, 이와 다르게 추련과 금희는 비도덕적 주체이다.

명망있던 영문학자의 아내로서 은주 어머니는 그 딸에게 취직을 시킨다는 것을 변으로 알았다. 은주는 엄격한 교육을 통해 자제(自制)와 인종(忍從)의 구시대적인 모럴을 제시하는 보수적 훈육의 자장 아래 성장했다. 따라서 은주는 성・사랑・결혼 감각의 근간에 관여하게 될 때 비단 형식뿐만 아니라 감정 그 자체에도 금기와 규율의 방향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50년대 신문소설의 작가 인식에는 사회 부패상의 고발과 사회 재건에 대한 공감대와 의지가 있었다. 여성의 욕망을 투사하여 당대 사회, 문화, 정치적 담론과의 복합적인 요소를 드러내는 장덕조 소설의『激浪』도 예외는 아니다.[30] 추련과 금희의 가치관은 가부장적 질서를 교란하고 제도를 넘어서려는 당시의 욕망을 반영한다. 반면에 은주를 통해 바람직한 '도덕', '윤리'의 방향을 견인하며 규범화된 인물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여 갈등을 다각화한다.[31]

---

30) 장덕조 소설이 대중소설로 빠르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독자의 심미적 욕구와 소설의 간접적 지도기능, 교양의 수단을 골고루 갖추어 소통하는 작가의 필력(筆力)에 있다. 장덕조는 기존 가치관을 포용함과 동시에 여성 주체의 욕망과 인식의 변화 등 대중의 가치관과 '교감'하며 새로운 여성상의 영토를 개척하는 글쓰기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였다.(김윤서,『장덕조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106-107.)

31) <作者의 말>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담고 있다.

<…> 필자는 여기 그같은 여인 '한은주'를 찾아내어 이 소설의 주인공을 삼는다. 그는 어떻게 사랑하고 思想하고 생활했던가. 은주로부터 사랑의 열쇠를 받은 남자는 神에게 통하는 문을 열었던가. 새로 쓰여지는 長篇은 시대의 風俗圖가 되어야 한다는 見解에서 지금 눈을 모으고 한줄기 時代相을 응시하려는 필자의 意慾이 이번 小說

술과 음악과 쾌락과 -그 가운데 문득 <야간학교>의 초라한 아이들의 모습이 떠 오른다. 오늘 저녁 그 아이들을 혼자 가르치느라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유준식의 넓은 이마도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 종수, 민우, 윤재, 달호".

은주의 입에서는 가엾은, 아이들 이름이 야트막하게 불리워졌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풍부한 이 방안의 광경과 영양 불량으로 눈이 퀭한 야간학교 아이들의 모습, 그것은 하늘과 땅같이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는 이같은 두 세계가 지금같은 땅덩이 위에 있다고 생각 할 수 조차 없었다. (『激浪』, p.24)

은주는 건전성의 윤리와 도덕적 순결성을 중시하는 여대생으로 야학에서 자원봉사를 한다. 친구인 금희가 여성의 순정을 구성하는 항목을 위배하는 자유분방하고 통속적인 연애를 일삼을 때 은주는 순결, 헌신 등의 덕목을 내면화하며 사랑의 영원성과 유일성이라는 대중적 숭고의 관념을 확보한다.

금희가 황망히, "왜 싫다구 그래? 슬슬 따라가면 되는 걸"
하고 눈을 흘겼다.

"그런 사람들이 추자면 서툴러도 추는거야. 저기 추련 여사허구 스텝을 밟고 있는 인 이번에 불란서에서 미학(美學)을 전공하고 돌아온 박창렬씨 아냐. 저런이가 푸로포-즈 해오건든 암만말고 추어요"

그말을 들으며 은주는 까닭도 없이 마음 속에서 반발심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었다. 은행 간부이건 블란서에서 온 사람이건 감지덕지 할것이 무엇이랴 싶었다. (『激浪』, p.20)

인용문에서는 아프레걸과 같은 태도로 일탈적 욕망과 의식을 즐기며 쾌

위에 이루어진다면 다행이라 하겠다.(경향신문 1957년 11월 26일)

락의 영역을 형성해 가는 금희와 달리 진지한 마음으로 주체적 인식을 갖는 은주의 태도를 보여준다.

『激浪』에서 질투의 감정에 동반하는 불안, 분노, 굴욕감은 비단 여성에게만 향하고 있지는 않다. 질투 모티프의 확장으로 남성의 질투에 초점화해 접근하는 부분도 있다.[32] 은주의 시각에서 창렬의 시선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그 사람헌테는 야간 교실을 충분히 운영해 나갈 능력이 있나요?"
> 박창렬은 초조한듯 방안을 왔다 갔다 하며 이런 소리를 한다. 유준식의 일을 이렇게 캐어 묻는것은 분명히 질투라고 은주는 생각했다. 그것도 상당히 격렬한 질투다. 은주는 그 질투의 밑바닥을 흐르고 있는 박창렬의 애정을 비로소 깨달은듯 잠간동안 어찌할 바를 몰랐다. 준식을 생각하고 준식에게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뗀 말이 도리어 박창렬의 질투를 도발 하고 그 애정에 불을 질렀다는 것은 은주로서도 의외였다. 자는 범의 코를 찌른 격이 되었다. (『激浪』, pp.142-143)

인용문은 함께 야학을 운영하는 준식과 은주의 관계에 대해 불안하고 초조한 심정을 품은 창렬의 질투를 포착한 부분이다.[33]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남성인물의 질투가 감정 변화를 뚜렷이 드러내거나 주도(主導)모티프가 아닌 단순한 상황적 요소로 질투의 파고(波高)와 시비(是非)는 드러나지 않는 점이다.[34]

---

32) 장덕조의 소설 중 남성의 질투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은 다음과 같다.
장덕조, 「남편」, 『신가정』 10월호, 1933; 장덕조, 「질투」, 『방송』 제1권 4호, 공보실방송관리국, 1956.10; 장덕조, 「소나기」, 『방송』 제1권 2호, 공보실방송관리국, 1956.10.

33) 질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에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 했을 경우에 보이는 반응과 제3자의 존재로 인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라는 두 가지 중심 요소를 포함한다는 정의에서 볼 때 창렬의 복잡한 감정을 '질투'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박선생님이 부질없이 은주를 도와 주니까 미스터 유가 야간 교실도 못하게 되고 애인도 빼앗게 되었지 뭐예요"

"애인? 미스터·유의 애인이 누군데"

"아이참, 한은주지 누구겠어요"

"미스·한이? 아니 그 두사람이 애인 관계였단 말이지?" "네"

<…> 박창렬은 신음성 같은 소리를 내었다. 모르던 사실을 알았으니 눈앞이 환해져야 할텐데 도리어 시야가 캄캄했다. 머릿속에서 불길 같은 것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다. 분노(憤怒)의 감정이었다. 질투였는지 모른다. (『激浪』, pp.403-404)

『激浪』의 창렬은 당대 독자들이 선망하는 현실성의 기제를 충분히 갖춘 심리적으로 안정되며 강한 자존심의 소유자로 묘사된다. 프랑스에서 미학을 전공한 엘리트이며 은주의 야학을 후원할 만큼의 부유한 남성으로 추련의 적극적인 유혹에도 이성을 잃지 않고 성숙한 인품을 보인다. 창렬의 이러한 조건은 연인 관계에서의 질투에서도 감정적 반응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질투의 감정에 혼란스럽게 뒤엉켜 애착을 보이는 인물은 추련이다. 추련은 애착의 대상인 창렬이 '독점적 주체'가 되질 못하자 창렬에게

34) 다채로운 질투의 양상은 장덕조의 초기 소설에서도 나타난다. 대체적으로 부부중심의 애정으로 인한 질투이며 오해로 유발된 질투심으로 부부간의 불화가 조성된다. 이후 질투를 계기로 갈등을 겪다가 오히려 상대에게 깊은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50년대에는 대부분의 연애소설에서 질투의 정념 나타나며 제3자로 인한 갈등으로 치명적인 파국을 맞는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질투로 인한 갈등을 다룬 장덕조의 초기 소설은 다음과 같다.

저자	작품명	잡지명	연도
장덕조	「남편」	『신가정』	1933.10.
장덕조	「양말」	『여성』	1936.09.
장덕조	「여름밤」	『삼천리』	1938.10.
장덕조	「근친전후」	『여성』	1939.12.
장덕조	「젊은부부」	『조광』	1940.03.

약을 먹인 뒤 호텔방에 가서 쉬게 한다. 이튿날 창렬이 두통을 느끼며 일어나자 추련은 어젯밤에 결혼을 약속했다며 창렬에게 책임을 요구한다. 추련의 음모에 속았음을 깨달은 창렬은 어지러움 속에 운전을 하다 낭떠러지로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망한다.

> 그 남자로부터 떠나가야한다는 자기의 진의는 박창렬의 편지에 있는것처럼 부질 없는 비판이나 구 시대적인 도의심이 아니라 그보다 좀 더 직접적인 것 이기적(利己的)인 것이었다. 두 여자가 한 남자의 애정을 나누어 가질때의 정신적 손실, 육체적 소모, 세상의 이목, 분렬(分裂)하는 쾌락, 이같은 타산이 박창렬로부터 떠나 한은주 자신의 독립해서 나아갈 길을 새로 개척하게 한 것이다. 사랑에 대한 동경과 꿈은 완전히 깨어져버렸다. 이제 집착(執着)은 희미한 여운(餘韻)에 불과했다. 은주는 일주일이 넘는 동안 괴로워 하고 괴로워한 끝에 이같이 강한 자기 존중의식을 회복하게 된것이었다. (『激浪』, p.313)

인용문은 은주를 통해 보수적 가치관의 지향성을 내면화하고 있다. 질투는 경쟁과 애착이 전제된 상호주관적 삼자관계 즉 주체(sujet), 대상(objet), 반(反)주체(anti-sujet)에 의해 발생하는 정념이다.[35] 창렬에게 애착의 정념에 집착한 추련은 은주에게 경쟁의 그림자를 느끼자 파티에 창렬을 초대해 약물을 먹이고 방으로 데려가 눕힌다. 창렬이 비몽사몽간에도 은주의 이름을 부르자 금희에게 은주 앞으로 편지를 쓰게 하여 운전수 편으로 보낸다. 편지를 받은 은주가 급히 추련의 집에 가보니 추련이 창렬과 함께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은주는 충격을 받는다. 순결과 도덕을 중시하는 은주는 오랜 번민 끝에 창렬에게 이별을 고하게 된다.[36]

---

35) 유기환, 「<사랑의 한 페이지>에 나타난 질투의 기호학적 연구」, 『외국문학연구』 제45호, 2012, p.232.

『激浪』은 대중성을 확보하는 신문소설의 장단점을 살려 애정의 삼각관계를 흥미롭게 전개한 '질투'의 복합적인 감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50년대 상류층의 향락문화와 자유로운 연애 취향 등은 당시의 풍속을 가늠하는 용이한 지표가 된다.[37] 연애와 애욕의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이면에서는 진정성 있는 사랑을 갈구하는 풍토가 형성된다. '방종', '탈선', '문란'으로 각인된 일탈과 방종의 자유연애가 난무하는 가운데 은주는 순결성에 지대한 가치를 부여하며 자기 존중의식을 회복하게 된다.

> 은주의 생각에는 육체와 정신이란 항상 한줄에 매어있는 일관된 것이었다. 남자와 여자가 정신적으로 깊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껴안고 입술을 마주내고 나아가서 육체관계를 한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몸에 최초로 접촉해온 남자를 순결한 애정을 가진 진실한 사람이라 믿었다. (『激浪』, p.274)

> 남자의 손과 입술을 모르는 청결한 육체와 성스러운 기도를 가지고 있던 그날, 순결만이 사고(思考)와 생활의 전부였던 그날. 철이 난 후로 은주는 항상 그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켜왔다. 언제나 향상(向上)을, 상승을 꿈꾸었다. 스스로 비판하는 버릇을 붙였다. <…>
>
> 순수, 청결, 사람들은 이같은 사고방식을 유치하다고 조소할 것인가. 웃을 수밖에 없는, 주관적인 관념이라 모욕을 던질것인가. 그러나 은주는 그렇게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激浪』, p.314)

장덕조 연애소설의 결말 처리 방식이 대체로 보편적인 윤리로 귀결된다

---

36) 은주의 이러한 태도는 연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오해'라고 볼 수 있다. 질투라는 정념은 아주 작은 신호, 아주 작은 징후로도 주체로 하여금 의심과 오해의 늪에 빠지게 한다.

37) 김윤서, 위의 논문 참조.

는 점에서는 참신성이 약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1930년대 중반 이후 여성작가 좌담회의 중심 멤버이자 여류문단의 핵심 인물로서 그의 작품이 '여성적', '가정적', '대중적'인 특징을 두루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이의가 없다. 일찍이 임순득은 장덕조의 문학의 가능성을 극찬한 바 있다.

> 사람들은 씨를 가정부인의 여기라고 부질없는 입놀림을 할 필요는 없는것이다. 적어도 장 씨만은 어느 누구의 '여류소설가'보다도 착실한 문제에 착안점을 두고 겸손하게 자기의 창작대상으로써 키우려는 성의를 보여준 작품 <자장가>를 제외한 최근의 '여류작가' 속에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씨의 협력은 창작대상이 어느 정도의 높이와 심도를 갖추어진 우연성을 기다릴 것 없이 씨의 문학시야는 높고 넓어질 수 있을 것을 믿지 않고는 우리는 최정희, 모윤숙 씨의 세계에 허전하여 발을 디딜 수 없는 것이다.[38]

임순득은 당대 여성의 생활과 감정에 밀착되어 '교훈'과 여성의 지혜를 견인하는 장덕조만의 착실함을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하였다.[39] 장덕조의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인물 제시를 통한 윤리적 방향은 『激浪』에서도 나타난다.

은주의 수렴형 도덕화와 근대의 윤리성을 근간으로 타자화의 여성성을 재생산하는 사랑의 종착점 역시 작가의 가치관과 맞물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가치관을 탈피하여 금기시되고 있는 남성의 질투를 부분적이나마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질투'의 문학적 재현을 의미화하고 있다.

---

38) 임순득, 「불효기에 처한 조선여성작가론」, 『여성』, 1940.9, p.53.

39) 진선영, 「부부 역할론과 신가정 윤리의 탄생 -장덕조 초기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28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pp.489-490.

Ⅲ. 맺음말

본 연구에서는 장덕조의 연애소설『激浪』에 내재한 '질투' 모티프를 인물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질투'는 사랑의 갈등을 다루는 활용적 소설 장치이자 인물의 욕망을 파악하는 원초적 성정(性情)이다. 다양한 인물의 욕망과 갈등의 근저에는 작가의 의식화된 '도덕성'이 내재되어 있으며 결핍된 현실에 대한 이상적 계도를 역설하고 있다. 각 인물들의 욕망 기저인 질투 양상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한 열정의 주체인 추련은 질투의 정점에서 극단적인 욕망을 보여준다. 질투의 불안과 갈망은 행동적 반응을 수반한 '파괴형'으로 변형된다. 욕망의 충족을 위한 부정적인 애착은 사랑의 대상을 자신에게 종속시킴으로써 맹종하도록 만드는 음모를 꾸민다. 그러나 주체는 결코 완전한 충족을 얻지 못하고 사랑의 대상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둘째, '쾌락'과 '유희'의 주체인 금희는 50년대 '아프레'의 전형으로 질투를 외부로 발산하는 '변이형'의 형태를 보인다. 유희적 사랑이 심리적 빈곤감을 촉발하자, 내부로 억압되거나 잠재되지 못한 질투의 감정은 추련의 음모에 적극 가담하여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비극적 결말은 질투의 주체들로 하여금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주며 도덕적 개심(改心)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은주는 작가의식을 대변하는 인물로 수렴형 도덕화의 봉합을 통해 도덕과 윤리를 계도함으로써 대의적 가치를 조율한다. 또한 은주를 둘러싼 남성인물의 질투가 파고(波高)와 시비(是非)를 드러내지 않으며 상황적 요소로 포착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

50년대 여성교양의 화두는 새로운 제도화의 메카니즘 속에 보편적 범주로의 편입이었다. 즉 남성 중심적 보편성 하에서 여성을 사·공적 개인으

로 인식하고 호명하였다. 이에 당시의 여성작가들은 전통적 여성관과 신분상의 차별, 여성의 내적 독백을 통한 근원적인 고독, 여성의 성적 욕망의 긍정적 인식, 성차별적 이데올로기의 이중성 등을 보여주며 대중소설의 다양성을 확장시켰다.

한편으로 50년대 실시된 여성교육의 궁극적 목표가 부덕과 모성애를 바탕으로 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재생산이었으며 개화기이래 제시된 현모(賢母)와 양처(良妻)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장덕조는 세태와 밀착된 소재를 채택하여 여성의 다양한 의식과 생활을 서사화함으로써 여성문학의 지형도를 구축하였다. 대중연애서사를 통한 여성 의식의 성장과 변화,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 열정과 주체성은 장덕조 소설의 보편적인 귀결 양상이다.

따라서『激浪』의 '질투' 모티프를 고찰하는 작업은 50년대의 다양한 연애소설의 자장 안에서 작가의 현실인식과 특성을 이해하는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문학의 혹평 속에 변방에 머물고 있는 장덕조 문학의 위상에 대한 다양하고 심도있는 연구는 차후 논문을 후약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장덕조, 「激浪」, 『新太陽社』, 1959.

장덕조, 「激浪」, 『경향신문』, 1957.12.1.~1958.5.31.

2. 논문 및 단행본

강준만, 「선정주의는 어떻게 탄생했나」, 『대중문화의 겉과 속』, 인물과사상사, 2013, pp.427-434.

김동윤, 『신문소설의 재조명』, 예림기획, 2001, p.189.

김윤서, 『장덕조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106-107.

롤랑 바르트, 「질투」, 『사랑의 단상』, 김화영 옮김, 동문선, 2004, p.213.

백선기, 「영화에서 표출된 정념의 기호와 그 함축적 의미」, 『기호학연구』 28, 2010, p.137.

서정철, 『기호에서 텍스트로』, 민음사, 1988, p.327.

송명희・여성연구회, 『페미니스트 남성을 말한다』, 푸른사상, 2000, p.80.

유기환, 「『사랑의 한 페이지』에 나타난 질투의 기호학적 연구」, 『외국문학연구』 제45호, 2012, p.232.

이경미, 「韓・中・日 古典文學 속에 보이는 여성과 질투」, 『中國學』 第41輯, 2012.4, p.54.

임순득, 「불효기에 처한 조선여성작가론」, 『여성』, 1940.9, p.53.

카웰티(J. G. Cawelti), 박성봉 편역, 「도식성과 현실도피의 문화」,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1994, p.107.

필리스 체슬러・임옥희 옮김, 『여성과 광기』, 여성신문사, 2000, pp.12-15.

홍성민, 『문화와 아비투스』,나남출판, 2000, p.25.

홍정표, 「정념 기호학」,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14, p.41.

Abstract

An investigation of 'jealousy motif' in Dukjo Jang's novel

- Focusing on『Raging Waves (激浪)』-

Kim, Yun-seo

'Jealousy' in semiotics of human passion is a very common emotion regardless of gender, age, and country. It is a major motive in the literature. Hence, 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a specific situation where 'jealous' passion shown in Dukjo Jang's long novel『Raging Waves』in the 1950s formed an area of desire and incompleteness of ideology and 'sex · love · marriage' focusing on post-war wome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structive jealousy and madness represented by Chooryeon are caused by eagerness and anxiety of jealousy. She tried to make the object of her love dependent on her through negative affection to satisfy her desire. However, she could not feel completely satisfied. She made the object of her love end in death.

Second, variant jealousy and play represented by Geumhee were characteristics of typical 'Apres-girl' in the 1950s. She tried to suppress the emotion internally or diffuse the emotion of jealousy that could not lie hidden in a type of being privy to other people's plot. However, it resulted in a tragic end, similar to that of destructive jealousy.

Third, Eunjoo's moral culture-type moralization is a type speaking for the author. It tunes up the value of moral law by leading morals and ethics through moralization and moral culture of jealousy. Besides, the fact which jealousy of the male character around Eunjoo did not reveal wave height or right and wrong. It was captured as a situational factor worthy of notice.

This study can be regarded as a significant work to understand author's perception of reality and his traits in the magnetic field of various popular novels in the 1950s through investigating 'jealousy' motif in Dukjo Jang's

novel.

Key Word : Jealousy,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madness,
competition, moralization, gender difference in jealousy

김윤서
소속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agape@ynu.ac.kr

이 논문은 2017년 10월 31일 투고되어
2017년 12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12월 8일 게재 확정됨.